



의료인문 테이스트를 보드본부

News Letter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Contents

Volume 1.

의학과 인문학 그리고 의사와 인권	1
상상의 동물 : 건강한 본 1	3
커피 한 잔 속의 세계	5
머니가 머니?	7

Volume 2.

야구장에서 토론 찾기	9
의사와 전쟁터,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12
위인들이 사랑했던 와인의 세계	14

Volume 3.

이장미의 두근두근 연애사	17
시험 찍기 대신 사진 찍기	19
새로운 시대의 의학	21

취재기자

-전우주

- 보도본부의
조장으로 가장
강하다.
- 김민수의
대체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의료인문레마스쿨 보도본부 oojuo1119@naver.com

의학과 인문학 그리고 의사와 인권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영역의 학문으로, 자연과학이 객관적인 자연현상을 다룬다면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의사는 의학이라는 자연과학적 학문을 통해 적절한 처치로 환자의 건강을 되찾아주고 학문적 성과를 목표로 하면서도, 사람을 대하며 의사 본인도 목표를 지닌 사람이다. 이번 취재에선 의학과 인문학과의 만남 조의 활동과 강의를 통해 의사가 가져야 할 가치탐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의학과 인문학과의 만남 조의 활동은 조금 독특한데 여러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이 주최하시는 인문학 및 인권에 대한 토론회의라는 점에서 여러 학교에 방문하여 교수님들의 강의와 토론, 강사분의 강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교수님들이 고민하는 가치탐구에 대해 배우고 의사이신 교수님들이 이러한 가치탐구들에 대해 어떠한 고민들을 하는지 이해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날은 인권에 대해 다루는 정기적인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대구 뿐만 아니라 대전 지역 등의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서 오랜 시간동안 인권에 관련된 강의를 청강하고 토론을 나누시고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를 갔을 때는 교수님들의 학생 인권에 관한 토론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강의인 진료현장에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특강이 시작될 때였다.

의료현장에서의 인권강의의 강사님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조현병 등의 환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인권적 측면이 중요하며 정신과 의사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매년 인권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하셨다. 정신과 의사의 인권 교육은 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인권 교육은 비단 정신과 의사 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료에 대해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가볍게 하신 후 인권에 대한 주 내용을 말씀하셨다. 강사님의 인권강의의 특별했던 내용은 인권을 개인의 권리와 사회로부터 받을 권리 즉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어 설명하셨다는 점이다.



강사님은 최근 사회는 각 개인의 자유권의 충돌로만 너무 인식되어 개개인들이 책임을 지지지만 사실 사회권에 의해 사회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고 개인들은 연대와 투쟁을 통해 국가에게서 사회권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예를 들어 흡연하는 사람과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각 개인의 권리를 따져 흡연하는 사람이 금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흡연 부스와 같은 것을 국가가 적절하게 제공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든 피는 사람이든 불편하지 않을 권리를 얻어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질문과 토론 시간에 이어진 교수님들의 질문인 ‘사회권을 획득하겠단 빌미로 오히려 국가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려는 이익집단들의 행태 등의 사회문제’가 충분히 이러한 연대를 통한 사회권 획득에 있어 충분히 주의할 점이며 인권에 있어서도 아주 명쾌한 답은 없고 적절한 고민과 선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큰 행사였던 만큼 간단한 식사 및 정기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축하자리가 있었고 교수님들의 축하 말씀들이 있던 후 활동이 끝났다. 밥을 먹는 동안 참여한 1 조 조원들과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다.

의학과 학생으로서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언젠가 의사가 되면 환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치료를 하는 것과 환자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사이에서 깊이 고민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우며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환자를 효율적으로 살리는 것을 우선할 것인지 인권을 더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사로서 우리가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해진 답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인권과 환자의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수님들이 의사로서 또한 교수님으로서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시는 모습들을 보며 많은 부분에 있어 노력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좋은 활동이었고 정기적인 의료인문학 한마당 행사가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상상의 동물 : 건강한 본 1

조선시대때는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는 말이 있었다면 2019년에는 울면 근손실이 온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근손실을 막기위해 모인 의료인문테마스쿨 2조 건강한 의대생활의 김인환 교수님과 본과 1학년 강흥구 김희진 김도영 임륜기가 이번 취재의 주인공들이었다.

사실 취재를 나가기 전부터 2조는 매우 인기가 많았던 조로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던 조였다. 그만큼 의과대학생들이 단순히 학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다른 취미생활들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조는 먼저 체중과 BMI 등을 잰 후 각자 집에서 운동을 하면서 달라진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운동을 통해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바라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단순히 다이어트나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동 그 자체를 통해 피폐한 의대생활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큰 목적이었다고 한다.

회식 때 김인환 교수님은 건강한 의대생활이라는 취지에 맞게 회식에서도 술은 한종류만 시키시고 탄수화물을 시키시지 않고 단백질 위주의 회식을 진행하셨다. 또한 회식을 진행하시면서 조원들에게 의대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여러가지 힘든 점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뜻 깊은 충고들을 하셨다. 교수님께서 이번 의인테는 건강한 의대생활이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을 위주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건강을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차원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셨다.

사실 본 1의 생활 패턴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정해진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조원들도 시험에 치여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수님께서서는 본과 1학년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순히 몸의 건강을 위해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더 안 좋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자신도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힘들어서 다른 일들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다.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본과 1학년은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같이 병행하기를 권고하셨다.

이날 회식이 끝나고
또 술을 마셔서 크게
의미는 없었다고 한다.

취재기자

-정준교



취재를 하던 도중 또 한 분의 교수님께서 바쁘신 도중에 조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기 위해 들르셨다. 바로 의학통계학 교실의 곽상규 교수님 이셨다. 교수님께서서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좋은 조언을 잘 해주기로 유명하셨는데 본과 1학년 학생들에게 삶의 낙을 찾으라는 조언을 해 주셨다. 거창하게 삶의 낙을 찾기 위해 고민할 것 없이 하고싶은 걸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낙이 더 커져야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셨다. 김인환 교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계속 취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할 수 있는 취미와 할 수 없는 취미가 생긴다고 하셨다. 그래서 취미가 사라지게 되면 그런 만큼 취미를 만들어서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단순히 몸을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할 수 있는 운동 예를 들어 앞산에 가서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혹은 볼링장에 가서 친구들과 볼링을 친다거나 하는 운동이 취미가 되고 취미가 삶의 일부가 되어 정신과 육체를 모두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마지막으로 건강한 회식을 위해 매우 일찍 회식자리를 마쳐 주셨다.

곽상규 교수님의 한마디

“홍구는 이타적인
사람이다”

이번 취재에서 2 조 조원들과 교수님께서 결국 말하고자 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운동 같은 한가지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취미이자 하나의 삶의 낙으로서 자신의 여가시간에 여유를 주기도 하면서 때로는 또다른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 덩으로 건강한 육체까지 얻을 수 있는 운동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건강해짐은 언제나 열려 있다.

커피 한 잔 속의 세계

평소에는 커피의 맛이
아닌 카페인의 양이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든 커피를 마실 것이다. 그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지금 이 기사를 쓰고 있는 글쓴이 또한 커피를 마시며 본과 1학년 3Q를 버티고 있다. 직장인에게는 식사 후 잠시의 여유를, 아주머니들에게는 한가로운 오후를 선사한다. 하지만 커피 그 자체로 하나의 취미일 수 없을까? 졸음을 깨기 위해, 커피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가 아닌 커피의 향과 맛을 즐기는, 커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수 없을까? 급하게 커피숍에서 사서 마시기 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드립해 마신다면 경제적이고 새로운 취미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커피 이즈 더 뉴 블랙'과 함께 라면 할 수 있다!

'커피 이즈 더 뉴 블랙'은 노운석 교수님, 정진용 교수님이 함께 진행하시는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이다. '커피는 의사소통이며 힐링 시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를 모토로 커피 박물관 관람, 문헌고찰 및 바리스타 체험학습을 통해 바쁜 의료인의 삶 속에서 커피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다. 조원으로는 김한결, 김민석, 류재원, 박재용이 있다. '커피 이즈 더 뉴 블랙'은 여러 시즌의 의료인문테마스쿨에도 있었고 매년 인기가 많은 주제였다. 노운석 교수님의 커피 수업과 바리스타 체험학습을 통해 커피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수업이다. 내가 취재를 간 수업은 바리스타 체험학습 두번째 수업이었다. 바리스타 체험학습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카페이면서 대구커피교육학원도 하고 있는 'Table Top coffee'에서 진행되었다. 조원들과 수업을 같이 들으며 단순히 커피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울 만한 마음가짐이 있었다

생두는 로스팅과 원두 추출을 거쳐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맛있는 커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좋은 생두, 두 번째 올바른 추출 과정, 세 번째 추출 변수의 조절이다. 좋은 원재료가 없다면 좋은 커피가 있을 수 없지만, 최고급 원두만이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좋은 과정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추출 도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할 수 있는 핸드 드립으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 핸드 드립에는 법이 없다. 다만, 아직 익숙하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참고할 만한 핸드 드립 모델이 있을 뿐이다. 핸드 드립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기호에 맞게, 때로는 그날의 기분에 맞게 다른 맛의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취재기자

-전형진

사실 이날 커피 냄새를 너무 맡아서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없었다고 한다.



모든 의료인문테마스쿨
News letter 는
medicine.cu.ac.kr 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99%는 물이라고 한다. 단 1% 커피가 어떤 생두를, 어떤 로스팅 방식으로, 어떤 추출 도구를 사용하여 추출했는지에 따라 99% 물을 포함한 전체의 커피의 맛을 바꾼다. 단 1%의 차이가 커피의 수천, 수만가지 맛과 향을 좌우한다. 또한, 커피의 맛과 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다른 음식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개개인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먼저 개인이 커피를 마시는 속도가 맛인지의 차이를 만든다. 커피가 뜨거울 때는 신맛이 주로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식으면 신맛 뒤에 가려졌던 커피의 쓴맛과 단맛이 느껴진다. 너무 빠르게 마셔버린다면 커피의 쓴맛과 단맛을 느낄 수 없다. 조금은 여유를 갖고 즐겨야 그 맛을 심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커피의 향은 개인의 경험 차이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커피에는 원래 수천가지의 향이 있다. 다만 그 수천가지의 향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향을 우리는 커피의 향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전에 향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어떠한 설명과 수식으로도 그 향을 알려줄 수 없다. 오직 내가 직접 느낀 경험이 있어야 그 향을 캐치해 낼 수 있다. 경험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제한된 향과, 좁은 시야만을 보게 된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의 맛 속에는 또다른 세계가 있다. 맛있는 커피라는 좋은 결과 뒤에는 올바른 과정이 있다는 것, 커피의 99%는 물이지만 1% 커피의 차이가 전체 맛이 차이를 만든다는 것, 서두르면 느낄 수 없는 맛이 있다는 것을, 준비된 사람만이 더 다양한 향을, 더 넓은 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커피 한 잔 속에 담겨있다. 앞으로 여러분의 커피는 단순히 향 좋은 쓴 음료보다는 한 모금으로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취미이길 바란다.

머니가 머니?

머니,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흔히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의대생 및 의사들은 돈을 잘 벌지만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본과 3학년이나 인턴이 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여행을 다니고 차를 사는 모습들은 사회적으로 빈축을 사기도 한다.

10월 1일 오후, 최병욱 교수님을 필두로 루가관 4층에 모인 진지한 4명의 남자들은 돈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자본주의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머니가 머니?’ 수업을 계획하신 최병욱 교수님은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그리고 가깝고도 어려운 금융이라는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그려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수업을 기획하셨다고 했다.

수업 초반,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지난 모임에서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금주에 화제가 됐었던 경제 기사를 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은 주로 EBS 다큐멘터리 시청 후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수업에서 다루었던 영상의 주제는 ‘금융 지능은 있는가?’ 였다. 다큐멘터리는 금융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과 비유를 섞어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해주었다. 영상에서는 은행, 펀드, 보험, 파생상품의 운영방식과 허점에 대해 소개하고 영상 주제인 금융지능에 대해 설명했다.



취재기자

-조하연



영상에서 다루었던 은행, 펀드, 보험 등은 사회 초년생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 분야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금융상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얼마만큼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투자한다. 이러한 면에서 돈을 벌기 전 미리 지식을 충분히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금융과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금융용어와 체계를 마주하는 대신 쉽게 회피하곤 한다. 하지만 영상에서 어려운 금융체계를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하는 것을 보며 금융이 생각만큼 접근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하는 것이니 만큼 남을 믿지 않고 직접 알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Living point
-이번 학기 등록금은
4,805,000 원이다.

보통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자신의 금융 상태나 계획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학생들도 영상 시청이 끝나고 서로 토의하며 금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느꼈던 바를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하였다. 이해하기 힘들고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느껴지는 금융개념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을 보며 이들이 금융 분야와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취재기자

-조하연

두산베어스의
팬이다.

보도본부에서
맞집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인문레마스쿨 보도본부 oojoo1119@naver.com

야구장에서 토론 찾기

2019 KBO 한국시리즈 4 차전 10 회말 1 아웃, 그전까지 잘 던지고 있던 투수가 갑자기 교체되는 보기 드문 상황이 펼쳐졌다. 두산 베어스의 감독이 투수 교체 없이 마운드를 방문할 수 있는 히트수인 2 회를 어긴 것이다. 감독은 마운드 방문 전 올라가도 되냐고 먼저 심판에게 물었고, 심판은 이를 실수로 허락했다. 하지만 이후 심판은 히트수를 착각했다는 사실을 알고 갑작스러운 투수교체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두산이 승리하며 경기는 문제없이 끝났지만 실수를 하고도 웃으며 ‘좀 봐줘~’라는 말을 하는 심판진의 카메라에 잡히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야구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심판진의 실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어도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정에 없던 투수교체로 인해 두산이 4 차전에서 패배했다면 한국시리즈 우승팀이 바뀌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었다. 프로야구에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심판의 판단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야구 오심 모음’ 동영상들의 조회수가 100 만회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 야구 팬들도 심판의 일관성 없는 판정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주나 약물, 도박을 한 선수에 대한 처분, 선수나 코칭스태프 임용에 있어서 구단의 부적절한 대우 등 프로야구는 항상 다양한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10 월 29 일 오후, 야구를 잘 아는 사람 1 명과 야구에 대해 잘 모르는 3 명이 모여 프로야구와 얽혀 있는 다양한 논쟁거리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회자 1 명을 포함한 4 명의 학생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생각하며 토론을 펼쳤고, 때로는 이들의 의견이 대답하기도, 통합되기도 했다.

첫번째 주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대로 심판의 자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 주제는 ‘오심을 내린 심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는가?’ 였다. 찬성측은 심판도 경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찬성했고 반대측은 심판 판결의 질을 높이는 제도가 정착 중에 있으며 오심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토론이 진행되며 양측은 심판의 오심이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며, 쓰리 아웃제를 도입하고 심판의 판단능력을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다. 이후 사회자와 교수님께서 징계에 대한 정의와 징계를 받는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의 추가적인 질문을 하며 토론을 계속 이어 나갔다.



두번째 주제는 응원가로 쓰이는 곡의 저작권 문제였다. 몇 년 전 프로야구계는 응원가 저작권 문제로 떠들썩 했고 이 때문에 수많은 응원가가 다른 곡으로 바뀌고 다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토론에 앞서 3조가 함께 관람했던 야구경기의 홈팀인 삼성 라이온즈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선수의 등장 곡에 쓰였던 노래들이 저작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작곡가들에게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후 삼성은 응원단장의 자작곡을 위주로 응원가를 바꾸게 되었다. 프로야구 경기 중 응원을 위해 쓰이는 노래에 동일한 저작권법을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찬성측은 야구장에서 쓰인다는 것 자체가 상업적인 용도라고 생각하여 이에 동의하였다. 반대측은 이미 사용료를 지불한 상태에서 저작권권 때문에 돈을 더 내는 것은 불합리하며 응원가로 쓰이면서 노래가 일부 변형되는 것은 처음 허락을 받았을 때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세번째 주제는 매너 없는 관중을 제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였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30년이 지나며 과거와 같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경기장에 난입하는 등의 과격한 관중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너 없는 관중은 경기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토론을 진행하던 날 오전에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경기 중 투수 앞에서 옷을 끌어올려 가슴을 보인 여성이 영구 퇴장을 당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이 정말 많다는 점과 표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영원히 퇴장을 시키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3명의 학생들은 각자가 생각한 방법에 대해 토의했는데, 보안요원을 늘려서 감시하는 인원을 늘리자는 방법, 폭행 등의 상황에서는 즉시 퇴장을 시키자는 방법 등이 나왔다.

원래 이 수업의 의도는 인생에서 두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보다 학생들의 의견 일치율이 높았기 때문에 영화, 스포츠 경기, 연극 관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은 의대생이라는 신분 특성상 항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의 변형된 방식은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는 입장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 학생들은 의견을 옹골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회자나 교수님의 질문에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과 상대의 의견을 듣고 반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이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뜻 깊게 느껴졌다. 야구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야구 내, 외적인 논란은 항상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심판의 오심이 때로는 분하기도 하며, 때로는 내가 응원하는 팀에게는 찬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가 잘못된 줄은 알지만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팀의 선수로 받아들이고 응원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 야구에 대한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내는 것을 보며 나 역시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투수가 언제나 직구로만 아웃카운트를 잡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선택과 의견에서 언제나 한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는 변화구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업이었다.

의사와 전쟁터,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트로이 전쟁부터 시리아 내전까지. 인류 역사는 크고 작은 전쟁과 함께했다. 평소 부터 전쟁사에 관심있던 기자는 김홍태 교수님의 '전쟁터의 의사들' 조를 취재하게 되었다. 마침 기자가 취재를 간 날은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이었다. 현재 강원도 화천의 부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중이신 한동훈 대위님으로, 08학번 선배님이시기도 하다. '전쟁터의 의사들'이라는 조 주제와 가장 가까운 분이셨다.

수업은 김홍태 교수님이 틀어주시는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국방TV의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유명부대*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시며, '전쟁 자체보다 그 시대의 시대상, 그리고 전략들에 관해 공부하는 것'이라고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셨다. 이외에도 중간중간 전쟁관련 영상들을 틀어주셨다. Band of brothers에 나온 의무병 시나리오에서는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의 생사를 치열하게 붙잡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다.

* 유명부대 : 2차 세계대전때 미군에서 미술가, 광고업자, 건축가 등으로 구성되어 모조 대포, 전차, 전투기 등을 만들어 부대가 실재하는 것처럼 연출한 부대.

영상이 끝나고, 한 대위님께 대한민국 군의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대의 의료체계와 생각보다 열악한 진료상황을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대대나 연대 단위로 군의관이 한 명씩 배치되는데, 약의 종류도 충분하지 않아 양호실 수준의 진료만 가능하다고 한다. 사단 의무대는 지위상 2차 병원이지만 X레이나 CBC 등 아주 기초적인 검사만 가능하고, 3차 의료기관인 군병원에 가야 제대로 된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마저도 군병원은 언제나 병사들로 미어터져서, 늦게 도착한 병사는 하루종일 기다리다가 진료도 못받고 돌아가기도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병원에 가기를 원하는 병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팠다. 이외에도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부상/전사 등 환자 분류와 응급치료가 주된 업무라고 말씀하셨다.), 군의관으로서의 처우는 어떤지 (부대마다 너무 다르다고 말씀하셨다.)등등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주셨다.

취재기자

-이호성





마지막 주제는 좀 민감한 주제였다. 군병원에서 오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다. 선배님의 대답은, 어디에 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정신과 가야한다고 할 때 Neck stiffness를 확인해서 뇌수막염을 찾아내는 의사도 있다고 하셨다. 결국 문제 되는 소수가 뉴스에 나오고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 뿐, 실제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하셨다.

김흥태 교수님, 한 대위님과의 시간을 통해 전장에 있건, 부대에 있건, 병원에 있건, 의사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느꼈다. 병원과 전장의 가장 큰 공통점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있는 공간이라는 점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담긴 전쟁사 속에서 어떤 의사가 될지를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36 개월이다.

위인들이 사랑했던 와인의 세계

술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독특한 음료이다. 그 중에서도 와인은 매우 역사가 오래된 술이다. 6 천만년 전부터 포도가 존재하였으며 포도를 재배한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와인을 마셔왔다. 중세에 들어서 기독교가 와인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확고한 지위를 가진 와인은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 대량생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많은 철학자와 문학자들이 와인을 사랑하고 작품에 담았으며 의미를 부여했다.

보통 와인의 도수는 5%내외이다.

프랑스 르네상스의 거장 라블레의 작품에선 거인이 술병의 신에게 들은 '마셔라' 라는 신탁을 받고 감추어진 진리를 찾아 나선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절대권력과 기독교가 숨기고자 했던 '자유' 라는 감추어진 진리를 찾고자 하였으며 와인을 곁들인 저녁식사 때에 활발한 철학, 정치, 문학,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다. 루소는 와인을 예찬하였으며 괴테는 무인도에 가져갈 세가지 물건에 넉넉한 와인을 포함시킨 일화로 유명하고, 음악가 베토벤은 죽을 때 와인을 마저 마시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으며, 정치가 처칠은 거의 매일 샴페인과 시가를 즐겼다.

세계의 와인 조에서는 이러한 와인에 대해 공부해보고 시음해 봄으로써 와인과 친숙해지고 더욱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와인 조에서는 모임 때 마다 와인에 대해 각 조원이 조사해오고 발표하며 마지막에 교수님이 가져오신 와인을 시음해보며 공부를 마무리하였다. 취재하러 갔을 때에는 유럽과 신대륙의 와인의 특징, 간단한 역사, 등급 등을 발표하였다.

각 나라와 와인의 특징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다루자면, 프랑스 와인은 가장 유명하며 와인의 대표격으로 양조장명과 품종을 표기하여 나타내며 양조장의 명성이나 포도재배 지역이 중요하다.

취재기자

-전우주

먼저 이탈리아의 와인은 프랑스에 비해 고급 와인이 적긴 하지만 제법 훌륭한 와인들을 갖고 있다. 스페인은 스페인 내전 때에 많은 와인 기술자들을 잃었고 그로 인해 중저가 와인들을 주로 생산한다. 또한 Wine war 라는 행사가 열리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포르투갈의 와인은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스페인과 비슷하다. 독일 와인은 수도원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모든 의료인문테마스쿨
News letter 는
medicine.cu.ac.kr 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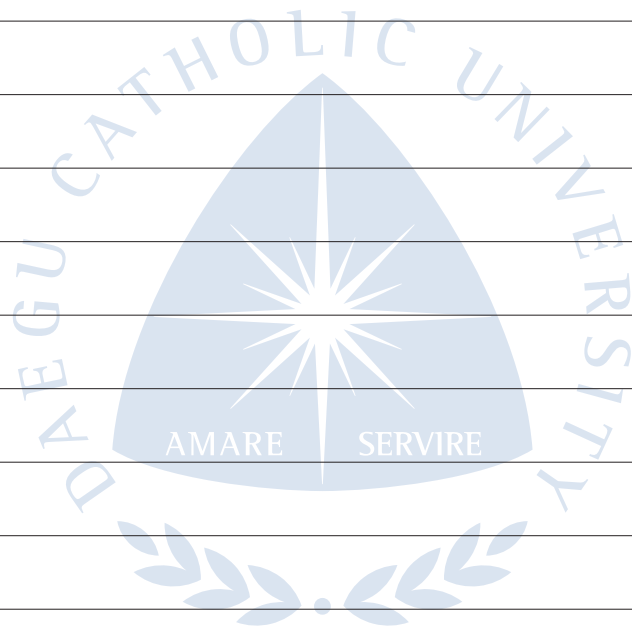
신대륙 와인은 유럽 와인과 다르게 양조장이나 지역명은 적지 않고 포도의 품종을 병에 적는다. 미국의 와인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나파밸리라는 특정한 작은 지역에서 생산된다. 나파밸리는 윈도우 컴퓨터의 초기 화면 배경으로 지명을 모르는 사람도 한번쯤 보았을 지역이다. 칠레의 와인은 주로 저가형 와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급 와인도 생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나 또다른 신대륙인 호주 등에서도 중저가의 다양한 와인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각 나라들은 또한 고급와인 생산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일본의 신의 물방울 드라마를 보며 피노누아 품종의 와인을 시음하였다. 옛날 작품이다 보니 드라마의 내용은 진부했지만 그러한 드라마가 나올 만큼 일본 내에서 와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최근엔 우리나라도 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아직 소주나 맥주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부족한 감이 있다. 와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인 만큼 국내에서도 와인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세계의 와인 조의 취재를 통해 와인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더욱 잘 이해하여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알고 마시면 더 즐거운 와인, 여러분도 한번 와인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MEMO



취재기자

-전형진

의료인문테마스쿨 보도본부 oojoo1119@naver.com

이장미의 두근두근 연애사

우리는 의과대학 6년 동안 해부학부터 시작하여 소화기, 순환기 등 많은 의학 공부를 거쳐 의사가 된다. 수많은 과목들이 서로 연관되어 이해되지만 그 중에서도 독자적인 하나의 분야가 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정신의학이다. 정신의학은 다른 의학 분야와 성격이 다르고 연관성이 떨어져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신의학은 환자를 대하는 의료행위의 기본이 되는 의학 분야이다. 정신 질환 환자 이외에도 많은 환자들이 정신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 ‘심리와 동영상’은 환자 치료의 기본이 되는 정신 의학을 이해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인문테마스쿨 수업이다.

‘심리와 동영상’은 윤서영 교수님이 진행하는 수업으로 강현수, 이도희, 이장호, 이현민, 임태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와 동영상’ 수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마음의 병이 있는 환자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은 실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환자를 면담하고 관찰한 것을 기술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느낀다. 이를 supervision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찰 사항을 왜곡없이 기록하거나 변형없이 notify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영상을 통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면담법을 배우고, 병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자료 더 나아가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윤서영 교수님은 단순히 정신의학 수업을 통해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병이 있는 환자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직접 연습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표라 하셨다. ‘심리와 동영상’ 수업을 통해 정신의학 면담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홍보 동영상을 만들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를 키울 수 있었다.





-이장미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

‘심리와 동영상’은 2주간 정신의학에 대한 역사, 정신병리, 심리학 이론을 공부하고,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 시놉시스, 시나리오, 동영상 촬영, 편집을 진행한다. 취재를 간 날은 이전에 작성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촬영 계획과 일정을 작성하고 조정하는 날이었다. 작성한 시나리오는 이장미라는 여자(?) 주인공이 강박성 인격장애환자, 의존성 인격장애환자, 자기애성 인격장애환자인 남자친구들을 만나며 이들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들과의 연애에 실패하는 이야기이다. 자칫하면 어렵고 심각하게 그려질 수 있는 여러가지 정신질환 환자의 이야기를 일상의 이야기로 잘 녹여냈다. 정신질환 환자가 우리와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하지만 정도가 심한 것뿐이라는 점을 잘 나타내는 시나리오였다.

취재를 가기 전 정신의학과 동영상 제작이 어떤 관련이 있고, 이 수업은 무슨 교훈을 전달하려 하는지 예상되지 않았다. 심리학 수업을 바탕으로 과연 어떤 동영상을 제작할지 조금은 의심스러운 궁금증이 들었었다. 하지만 재미있는 시나리오와 그 안에 담긴 의미 있는 교훈까지 모든 것이 예상을 빗나갔다. 아직 윤서영 교수님과과의 동영상 편집과 전달할 메시지에 대한 고찰 단계가 남아있다. 모든 단계를 거쳐 완성될 동영상이 매우 기다려진다.

시험 찍기 대신 사진 찍기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찰칵’ 소리, 현대인에게 가장 애용하는 정보 저장 수단인 사진 찍는 소리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맛있는 음식을 찍거나 SNS 를 위해 친구와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하다 못해 공부를 하기 위해 칠판을 찍는 것까지 사진은 우리 주위에서 매우 손 쉽게 접할 수 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라는 것이 발명되었고 우리 세대는 어릴 때는 필름을 사용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직접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 동네 사진관에 갔으며 조금 더 커서는 디지털 카메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필름 카메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점점 시간이 지나 DSLR 같은 카메라에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이 가장 애용하는 사진을 찍는 수단은 스마트폰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유튜브 같은 영상매체의 발달로 동영상 또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진만큼 손쉽게 한 장면을 담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다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한번쯤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왜 똑같은 장면을 찍는데 다른 사람이 찍으면 인생샷이 나오고 내가 찍으면 흔들리고 그냥 그런 사진이 되는지.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가 스스로 보정이나 여러가지 선택을 대신해주기 하지만 그래도 사진에 대해 직접 원리를 배우고 스스로 카메라를 조작해 사진을 찍는다면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본과 1 학년중 카메라에 관심이 많았던 김준기, 마상현, 장민익은 송현욱 교수님께 이러한 사진 찍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송현욱 교수님과 여행을 갔다 오면서 기본적인 렌즈 조작법과 광각, 망원렌즈를 통해 사진을 찍는 법을 배웠고 취재날은 마지막으로 접사를 찍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었다. 간단하게 접사렌즈는 어떠한 사물을 가까이서 찍어서 사물의 디테일들을 사진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 광각 렌즈가 초점거리가 길어서 멀리서 넓은 풍경을 찍는다면 접사렌즈는 매우 초점거리가 짧아서 사물을 매우 가까이서 찍을 수 있고 배경을 흐리게 해준다.

-송현욱 교수님 말씀
“파스타는 크립이다.”

취재기자

-정준교



-렌즈를 통해 영양분을 섭취하는 현대인의 모습



교수님께서 렌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직접 실습을 위해 음식점에서 나온 사진들을 가까이서 4 명의 남자들이 찍기 시작했다. 먹을 것 앞에서 다들 먹지는 않고 렌즈만 가까이 들이대고 있으니 기분이 묘했다. 교수님께서서는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자신은 모든 장면이 담긴 사진보다 일부분만이 더 부각된 사진을 더 재미있어 하신다고 하셨다. 그렇게 정석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은 새로운 impression 을 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선 사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재고할 기회를 주셨다. 의사가 되었을 때 분명히 직업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시간이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할 취미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물론 그 취미가 꼭 사진일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진은 짧은 학생 시간을 즐겁게 기록할 수 있는 기록물이 된다고 하셨다. 나중에 학창 시절을 추억하려고 해도 기억은 언젠가 희미해지고 바래게 되지만 사진을 통해 그 때 그 추억을 선명하게 다시 느낄 수 있다고 하셨다. 또한 카메라가 어려워 시작하기를 겁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문용 DSLR 은 중고로 10-15 만원(렌즈 별도) 정도 가격 선에서 사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하셨다. 물론 그것마저 부담스럽다면 요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이를 대체해서 멋진 사진들을 찍을 수 있다고 하셨다. 4 명의 남자들은 밥을 먹고서는 고양이 카페에 가서 고양이를 피사체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 저장을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매우 단편적이고 찍는 사진사의 주관이 뚜렷하게 개입하게 된다. 어떠한 장면을 어떠한 구도로 어떠한 것이 부각되게 찍을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대생활을 광각렌즈로 찍어보면 한번에 다 담기긴 하겠지만 6 년간의 길었던 공부만이 부각돼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접사 렌즈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찍어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던 행복이라는 디테일들 그 사이사이의 즐거움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도 동기들 과의 추억이 가득한 여러분 만의 청춘 앨범을 채워 나가길 바란다.

-크림 파스타를 시키자고
하고선 토마토 파스타를
시켰다.

-송현욱 교수님 말씀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의 의학

-지금 이 빅데이터를 통한
논문을 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한다.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다. 유튜브 추천 동영상도 사용자들의 영상 시청 패턴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있고, 페이스북 얼굴 인식 기능도 엄청난 양의 사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만들어져 있다. 특히 의학 분야는 빅데이터 연구의 최전선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echSci Research 에 의하면 2018 년 의학 관련 빅데이터 시장은 147 억 달러정도로 추산되었으며, 2024 년까지는 428 억 달러까지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시대를 이끄는 기술을 탐구하는 'TMD'조를 취재하였다.

기자가 취재를 갔을 때는 한미제약 데이터 사이언스팀에서 오신 빅데이터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를 하고 계셨다. "4 차산업은 헬스케어가 이끈다" 라는 파격적인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며, 끊임없이 정보가 축적되는 생체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의사가 진료한 기록들과 (임상 데이터) 보험을 청구한 기록이 (청구 데이터) 데이터로서 전산망에 남기에 보건데이터로서 분석할 데이터가 충분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빅데이터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이어스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녹내장 환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녹내장' 이라는 진단명과 안압약 처방을 받은 환자라도 실제 녹내장 환자는 아닐 수도 있다. 안압은 다양한 이유로 상승하는데, 이때 안압약을 처방하기 위해 삭감 당하지 않기 위해 녹내장이라는 진단명을 넣었을 수도 있다.

바이어스만 해결할 수 있다면 빅데이터는 정말 강력한 도구이다. 우선 저렴하다. 후향적 연구라고 해도 몇 만 명 단위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구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는 백만 명의 자료임에도 백만원대에 그친다. 접근성과 속도도 엄청난 장점인데, 웬만한 연구가 년 단위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빅데이터 연구는 일주일에 논문 하나 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분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빅데이터 자체의 특징 외에도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의료 빅데이터 종류에 대해서도 강의해 주셨다. 심평원 데이터는 싸고 접근이 쉬운 반면 데이터의 질은 떨어지고, (상술했던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허위 진단명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는 IRB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대신 데이터의 질은 좋다고 한다. 두 경우 모두 완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데이터라고 하셨다.

취재기자

-이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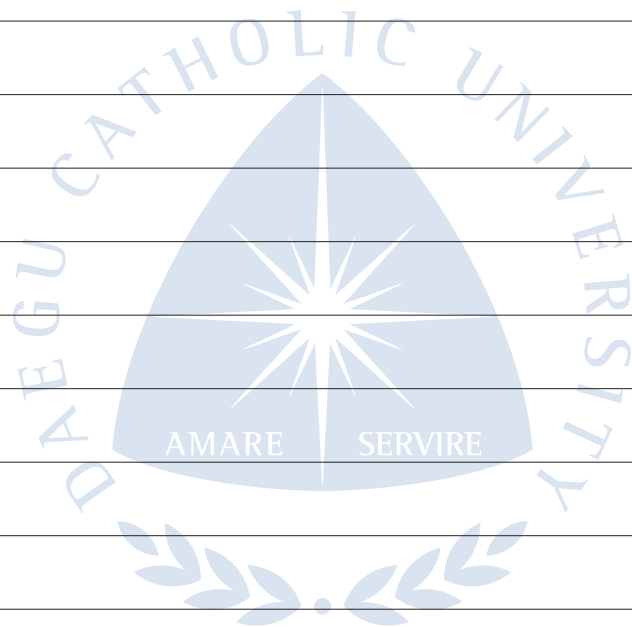


모든 의료인문테마스쿨
News letter 는
medicine.cu.ac.kr 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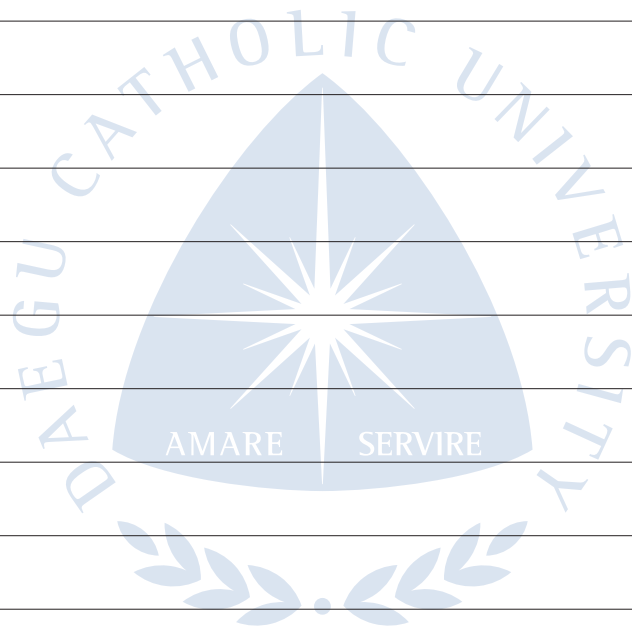
강의 후에는 실제로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해 당뇨병의 유병률을 구하면서, 단순히 ‘당뇨’ 상병을 받은 것과 ‘당뇨 + Metformin 처방’으로 분석한 것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며 바이어스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 당뇨병 검사도 일단 당뇨 상병 코드를 붙인 후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수업 전까지 빅데이터는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직접 체험해보니 빅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빅데이터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조금만 배워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했다. 아쉬운 건 아직은 빅데이터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아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창구가 얼마 없다는 것이다. 기자의 취재 이후에도 한 시간 수업이 더 있다고 한다. 마지막 수업은 좀 더 본격적인 실습으로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최종 결과물은 의료인문테마스쿨 발표회에서 볼 수 있다니,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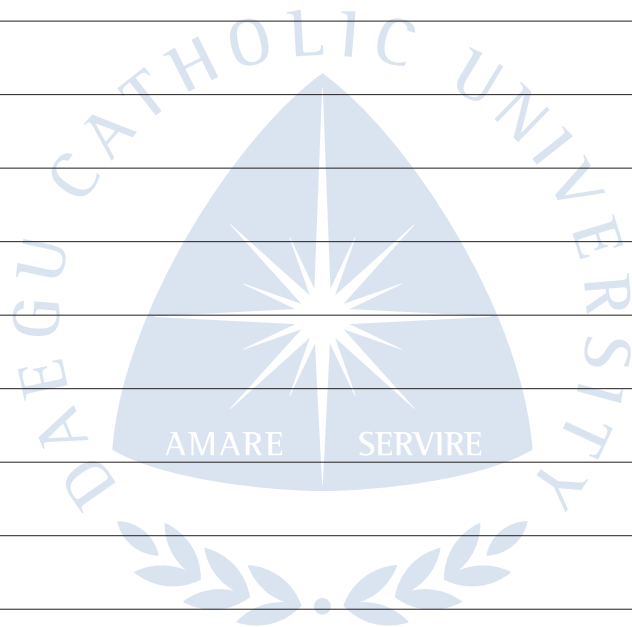
MEMO



MEMO



MEMO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DAEGU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